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 스님 선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2월 23일 황하정루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157명의 구성원 중 100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방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송 스님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 추대를 거쳐 방장 소임을 맡게 된다.

우송 스님은 방장 후보를 수락하면서 "경허 · 만공 스님과 역대 방장스님들의 뜻을 이어 일체중생을 어떻게 성불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겠다"며 "신심 나고 환희심 나는 총림 분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 및 유나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어린이청소년 기획위 첫 발족

조계종 포교원, 위원장에 동련 사무부총장 능후 스님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종책 개발을 위한 첫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린이청소년 종책 발전에 역주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가섭 스님, 이하 어청위)는 2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어청위 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을 비롯해 기획위원을 위촉했다.

포교원 내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전법을 위한 종책 개발과 각급 어린이청소년 단체 지원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다.

어청위원장 가섭 스님은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의 지원 기구 역할에서 의제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도 해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위가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위는 이날 동련 사무부총장 능후 스님을 기획위원장으로, 금륜사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법사 효욱 스님과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무총장, 설영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위원, 이대성 한국인성문화원 교수,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등 6명을 기획위원으로 구성했다.

기획위원회는 향후 포교콘텐츠 개발 및 각종 어린이청소년 교재의 불교 매뉴얼 정립, 어린이청소년 재단 설립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어청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재당선

2월 23일 산중총회서 85표 받아… 재안 스님 34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사진>이 재당선됐다. 선운사는 2월 23일 오후 1시 지장보궁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산중총회서 경우 스님은 132명 중 12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5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 후보로 나온 재안스님은 34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6표가 나왔다.

당선 직후 경우 스님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준 재안 스님께도 위로의 말을 전하다"며 "지난 4년의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교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입산해 같은 해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9년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눔 템플스테이' 탈북민까지 확대

불교문화사업단, 올해 나눔 템플스테이 지원 강화

1만 명 이상 참여로 각광
공공기관 MOU도 늘어나
포교원-하나원 협약 따라
템플스테이로 정착 지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최근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나눔 템플스테이'가 지원 계층의 폭을 넓혀 불교계 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 · 법무부 · 서울가정법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MOU를 맺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실시해온 데 이어 올해 지원 계층을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2017년 봄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잇달아 열리던 시기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사회문제를 변화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후 대학생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 각종 문화소외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돼 각광받았다. 지난해에만 1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올해에는 광주 증심사가 3월 15일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서 공주 갑사는 2월 26일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나눔 템플스테이 확산에 앞장서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사업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하나원이 MOU를 논의하고 있어 문화사업단이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나눔 템플스테이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호평을 받았다.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역할을 잘 담아낸 덕분"이라며 "포교원과 하나원의 협의가 끝나면 문화사업단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위한 사찰문화 심화교육을 3월 중 서울경기권과 부산경상권으로 나눠 실시, 관광종사원들의 불교 소양을 높인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기차-버스를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발하고, 외국인 개별여행객 대상 문화해설과 통역 · 버스제공 등의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외국인 참가자 10만 명을 목표로 템플스테이 외국인 전문사찰도 추가로 선정한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해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3월 27~30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관광박람회, 6월 13~16일 홍콩 국제여행박람회 참가를 준비 중이며, 사찰음식 해외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와 홍콩서 각각 50~100명 수준의 홍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4~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해 템플스테이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한편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인원 5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내국인 43만8000여 명, 외국인 7만7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5~8%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한 템플스테이 홍보관 프로그램 체험자와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외국인 참가자,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고급반 수강인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의 조계선풍 그립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 영결식

22일 송광사서 2천여 대중 참석
"계율 · 수행 확립한 수행자" 추모
후학들 '정진' 유훈 새기길 다짐



보성 대종사의 영결식이 끝난 뒤 후학들이 대종사 법구를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하고 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후학들에게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고 원적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22일 송광사에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수됐다.

오전 10시 명종 5타로 시작한 영결식은 삼귀의례에 이어 영결법요, 행장소개, 육성법문과 함께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가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조계산을 지혜와 덕행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루어 내고, 효봉 노사와 구산 선사의 선풍이 오롯이 살아있는 출격장부(出格丈夫)의 조계산문으로 확립했다"며 "보성 대종사의 아흔 둘의 성상(星霜)은 오직 종단의 계율체계와 수행가풍의 정립과 애민중생을 위한 올곧은 이정이었다"라고 추모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보성 대종사는 종단 초대 종정 효봉 스님과 은사인 구산 스님,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은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오셨다. 스님은 종단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법계 제도를 안착하시고 전계대화상으로 후학들의 수계를 주관했으며, 송광사 방장으로 청정한 발심과 수행의 목우가풍 전통을 이어 대중들을 산실에서 경책해 오셨다"고 대종사의 생애를 추모하며 "우리 종도들은 오직 화합하고 혁신하며 종문을 일신하여 미래불교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결식 직후 보성 대종사의 법구는 500m 떨어진 연화대로 이운됐다. 2,000여 대중은 법구를 따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뒤따랐다.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연화대에 안치돼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 속에 거화의식과 함께 세속의 인연을 다했다.

보성 대종사는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8세에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해인사 창섭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1950년 범어사 수선안거 이후 해인사, 송광사, 파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으며, 구산 · 동산 · 효봉 스님을 시봉하고 정진하면서 종단 정화불사에 동참했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이후 총무원 총무국장, 해인사 교무국장, 송광사 율주, 송광사 주지, 종회의원 등 종단의 소임을 두루 역임하고,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추대돼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초대 대종사 품서, 조계종 행자교육원 초대 유나, 원로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7년 송광사 조계총림방장에 추대된 후 송광사의 승풍진작을 위해 헌신했다. 인연을 따라 수행을 지도하고 선정을 즐기며 정진하던 중 지난 2월 18일 삼일암에서 세수 92세 법납 75년에 원적에 들었다.

한편, 보성 대종사의 49재는 4월 7일 7재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열린다. 3월 10일에 열리는 3재만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한다.

송광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